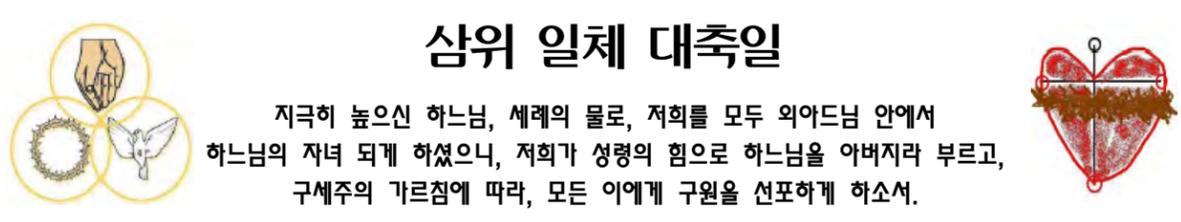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삼위 일체 대축일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세례의 물로, 저희를 모두 외아드님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세주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이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하소서.

5월 기도지향

- 유길수 크리스토퍼, 유경애 아녜스 가정
- 고영방 스테파노, 김명은 안젤라 가정

☞ 6월 기도지향 : 정준구 파비아노, 박혜정 카타리나 가정/ 정수한 베드로, 김주연 세실리아 가정

성모성월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 성월로 지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시기에 묵주기도와 성모 성월 기도를 자주 바칠 것을 권고합니다.

신심미사

- 예수성심미사 : 6/12(금) 오전 10시, 미사 후 ‘십자가의 길’
- 성모성심미사 : 6/13(토) 오전 10시, 묵주의 기도(미사 30분 전)

재미 청주교구 사제모임

- 일시 : 6/1(월) ~ 6/5(금) 4박5일
- 장소 : 버팔로 한인성당

☞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Holy Trinity 본당의 날

- 일시 : 6/6(토) 오후 4시 30분부터
- 장소 : 초등학교 주차장

☞ 미사와 성체거동, 바비큐 파티가 준비됩니다.

“성령 안에 말씀과 함께” 피정

- 일시 : 6/26(금)~28(일)
- 강사 : 정건석 프란치스코 신부님(오스틴 한인본당, TX)

기타

- 6월은, 세상을 향한-특히 죄인을 위한- 사랑으로 불타는 예수님의 성심을 공경하는 달입니다.
- 구역회의 결정대로, 6월부터 8월까지 구역모임은 없습니다.
- 지난 주일, 사제관 가구 조립에 애써주신 형제님들과 식사를 준비해 주신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사제관 리노베이션을 위해 도네이션 해 주시고, 봉사로써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에는 주방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에 일손이 필요합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81	512	178/163	78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정예진 한나	안광민 야고보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정예찬 미카엘 차민서 임마누엘	안광민 야고보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차주	김명은 안젤라	정준구 파비아노 박혜정 가타리나

애찬 봉사자

금주	백문주, 최은미, 박옥희
차주	김명은, 김화년, 안현숙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5/24	82명	452불	600불
김현동, 김호원, 박동희, 정석원(총 4세대)			

☞ 특별헌금 : 김호원, 윤지소, 이영민, 정석원(합계 48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 뵙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림 묵상

삼위일체의 신비

인간의 지혜로는 가능할 길 없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하느님의 눈을 통해 무한히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새로운 선물인 성령께서 모두 한 분이신 하느님임을 작은 가슴으로나마 깨닫게 하소서.

정미연 소화대리사

제 1 독서 : 신명기 4,32-34,39-40

<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다. 다른 하느님은 없다. >



복 되 다 주님께 서 당 신 기 업으로 뽑으신 백성이 여.

○ 주님의 말씀이 옳으시도다. 그 하신 일마다 진실하도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정을 즐기시고 그 사랑은 땅에 가득하도다. ◎

○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은 만들어졌고 만상도 당신 입김으로 만들어졌도다.

주님의 말씀이 계시자 이루어졌고 주님의 명이 계시자 존재했도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들 당신 자비를 바라는 이들 위해 있나니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제 그들을 살게 하시도다. ◎

○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나니 우리 구원 우리 방패 주님이로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랐던 그대로 어여빠 여기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제 2 독서 : 로마서 8,14-17

<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복 음 : 마태오 28,16-20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느님”



언젠가 한 일간지의 기본 좋은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 1부 리그에 진출해서 첫 해에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한국 여자축구 스타인 지소연 선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스물네 살의 그녀가 보여준 엄청난 노력과 상상을 초월한 활약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기자와 함께 인터뷰 장소로 가던 그녀는 폐지를 줍고 계신 할머니를 보자 갑자기 그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더니 따뜻하게 점심이나 드시라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여줬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말에 지 선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짐도 들어드렸을 텐데... 대신 시간이 없으면 식사라도 하시라고 돈을 조금 드립니다.”

저는 신문을 읽다가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저 자신이 몹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담은 순수한 사랑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이나 마음으로는 느끼지만, 실천까지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길 가다 모르는 이를 도와준 일이 언제였던가. 자신에게 이익이 안되면 부모마저 매몰차게 대하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아직도 그런 젊은이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에서 소박하게 실천되는 구체적인 행동이란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께서 같은 본성의 한 하느님이시라는 신비를 기리는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신앙의 핵심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계시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들 가운데에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고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의 인간에 대한 사랑 표현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의 신비는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체험의 진리입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사랑의 능력과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신비는 곧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됩니다.

- 서울대교구 허영엽 신부 -



제 3 편 자기 성화

제 8장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 “

【주석】

완전하신 것처럼 : 레위 11,44에서는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 제자들의 완전성은 하느님의 완전성에 상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실천적 완전성, 곧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분의 완전성이다. 그래서 루카 6,36에서는 ‘완전하다’ 대신에 ‘자비롭다’로 표현된다(주석 성경, 신약, 58).

【설명】

▶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라 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 반듯이 이웃이 있게 마련이다. 덕은 하루아침에 닦을 수 없다. 덕은 선행을 꾸준히 함으로써만 닦을 수 있으니, 덕은 선행이 습관화 되어 몸에 배어든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 자식이 없어도 덕이 있는 편이 더 낫다. 덕이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덕에 대한 기억 속에 불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덕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고 없을 때에는 그것을 갈구한다. 고결한 상을 놓고 벌인 경기의 승리자, 덕은 영원의 세계에서 화관을 쓰고 행진한다(지혜 4,1-2).

【교회의 가르침】

▶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으로” 부름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의 완덕에는 한계가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완덕에 전혀 한계점이 없다는 바로 그 점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028항).

▶ 덕(德)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몸에 밴 확고한 마음가짐이다. 덕은 인간이 선한 일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각적, 영적인 모든 능력을 다해서 선을 향해 나아간다. 그는 구체적인 행동들 안에서 선을 추구하고 이를 선택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03항).

▶ 향주덕(向主德)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신 삼위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 준다. 향주덕의 근원과 동기와 대상은 하느님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고 희망하며, 그분 자신을 위해 그분을 사랑한다. 향주덕은 세 가지인데 믿음, 희망, 사랑이다. 향주덕은 모든 윤리덕에 의미와 생명을 준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40-1841항 참조).

【어록】

- ▶ 덕행 생활의 목적은 하느님을 닮는 것입니다(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 ▶ 우리 모든 행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달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그 안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성 아우구스티노).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연구소, 2013 -